

보도일시 (인터넷) 2023. 5. 29.(월) 11:00,
(지면) 2023. 5. 30.(화) 조간

배 포 2023. 5. 26.(금) 오후

대일(對日) 김 수출계약 1,050억 원 역대급 성과

- 한국 김, 맛과 품질로 일본 입맛 사로잡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도 대일(對日) 한국 김 수출 입찰·상담회(5. 23.~24., 일본 도쿄)'에서 전년보다 61.5% 증가한 1,05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역대급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대일(對日) 한국 김 수출 입찰·상담회는 (사)한국수산물무역협회(회장 배기일)와 전국가공해태협동조합연합회 등 일본 김 관련 5개 단체가 주관하며, 올해는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면서 예년보다 많은 바이어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이번 입찰·상담회에서는 지난 몇 년간 대일 수출이 감소했던 마른김의 계약 증가가 눈에 띈다. 올해 마른김 계약액은 475억 원으로 작년보다 109.3% 상승했으며 계약량은 5억 6천만 장으로 작년 대비 52.5% 상승했다. 이는 지난 겨울 일본의 김 양식 작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김 양식·가공업계의 꾸준한 품질 개선 노력으로 한국 김의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가 높은 무당조미김과 김 조제품의 계약액과 계약량은 575억 원, 5억 8천만 장으로 작년보다 각각 35.9%, 14.4%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에 일본에서는 외식이 줄고 가정 내 식사가 많아지면서 가정식 반찬으로 즐겨먹는 조미김, 김자반 등의 수요가 늘어났으며, 코로나19 영향이 잦아들었음에도 한국 김은 여전히 시들지 않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입찰·상담회에서 그동안 계약이 감소했던 마른김의 출품 상품이 거의 전량 낙찰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일 김 수출 확대를 위해 품질 개선과 마케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정책관 통상무역협력과	책임자	과 장	박용한 (044-200-5380)
		담당자	사무관	안효정 (044-200-5387)
	수산정책관 수출가공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박승준 (044-200-5480)
		담당자	사무관	김영민 (044-200-5488)

참 고 1

한국 김 입찰 결과

□ 전체 수출계약액

(단위 : 백만장, 억원)

내 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품수량	975.0	1,050.0	1,111.1	1,210.0
낙찰수량	937.0	829.8	876.1	1,140.7
수출계약액	774	587	650	1,050

□ 품목별 수출계약액

○ 마른김

(단위 : 백만장, 억원)

내 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품수량	585.0	630.0	601.1	580.0
낙찰수량	548.2	411.0	366.1	557.5
수출계약액	424	261	227	475

○ 무당조미김

(단위 : 백만장, 억원)

내 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품수량(A)	140.0	160.0	240.0	350.0
계약수량(B)	139.7	159.4	240.0	307.7
수출계약액	148	156	216	303

○ 김 조제품

(단위 : 백만장, 억원)

내 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품수량(A)	250.0	260.0	270.0	280.0
계약수량(B)	249.1	259.4	270.0	275.5
수출계약액	202	170	207	272

참 고 2

대일 김 수출품목

마른김(일반김)	마른김(재래김)
	
<p>화입(건조)을 통해 수분함량을 3~5%로 낮춘 김</p>	<p>방사무늬 계열의 김으로 주로 일반김보다 약간 크고 얇으면서 구멍기가 있음</p>
무당조미김	김 조제품
	
<p>일반김에 기름과 소금을 더하여 가공한 김</p>	<p>마른김과 무당조미김 외의 모든 김제품 예) 구운김, 김자반, 김스낵 등</p>